

# 광주불교계, 원숭이해에 내실 다진다

## 지역불교 활성화·소외계층 지원 매진

지난해 새로운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던 광주불교계가 2016년 병신년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불자들과 만난다.

먼저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 중심사 주지)는 기존 봉축행사와 달리 참가자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구랍 28일 열린 제25차 운영위원회를 통해 불기2560년 봉축행사 기본방향을 '신명나는 축제 한마당'으로 설정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사찰 합창단 연회단으로 변화 △어린이·청소년 연회단 구성 △어울림한마당 등을 정했다.

광주불교연합회는 이와 관련해 "원형행사를 만들기 위해 주 행사장소인 아시아문화전당 앞에 대규모 조립식 관람석 의자 2000석을 설치, 무대를 주변으로 신도들이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자리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1월 '연회단 활성화 특별위원회(기획단장 일평, 금선사 주지)', '전통등 활성화 특별위원회(기획단장 해월,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장)', '사진영상보전 특별위원회(기획단장 무

등, 천통사 주지)'를 발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광주지역 대표적 재가 신행단체인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는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대표적 사업은 청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식당이다. 특히 입시를 위해 오랜 기간 학원생활을 하는 취업준비생을 위해 청년밥상을 매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보성건설에서 기부한 빨래차를 운영하면서 독거어르신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빨래 지원사업도 시작한다. 증심사와 공동으로 운영 중인 사찰음식 체험관은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여기에 기존 회원사업의 일환으로 소모임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시각, 만덕사 주지)는 최근 국제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탈핵 캠페인'을 중점적으로 전개한다. 더불어 기존 어린이·청소년 포교사업(자따마따 1박2일, 어린이생태학교, 청소년리더십캠프 등)과 회원수계식, 1080회원 모집사업 등도 실시한다.

광주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



2014년 1월, 광주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성도제일 법회에 참석한 광주지역불교 스님과 불교단체 대표들.

는 캄보디아 초등학교 지원사업을 추가적으로 진행한다. 지난해 네팔지진 피해 구호사업을 진행했던 것에 이어, 초등학교 화장실 신축, 학용품(가방, 노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중요사업이었던 캄보디아 축제, 네팔 축제, 외국인한국어말하기대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가정 10세대에 컴퓨터 지원사업과 의료 500명, 자비 의 쌀 지원사업도 이어진다.

올해 가장 안정적 성장을 이룬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단장 김정연)은 지난해 특별사업 중 하나였던 매월 망월동

염불공양, 어린이 포교(선덕사, 양복사) 지원사업, 화순 전남대 병동 순회, 보훈병원 완화병동 방문 마련, 농촌지역 지역 순회사업 등을 이어간다.

최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공양소**(행복밥상)를 마련한 **대해노인복지센터**(대표 무진, 범림사 주지)는 지역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밀반찬지원사업, 생필품 지원을 시작한다. 또한 지역불교의 새로운 포교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자비명상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포교취약지대인 대학생 불자회 지원사업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은적사 목조아미타상' 문화재 지정

## 군산 성불사 <석가여래행적승>도

전북 군산시는 '은적사 목조아미타불좌상'과 '성불사 석가여래행적승'이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고 구랍 29일 밝혔다.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237호로 지정된 '은적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은 조선 후기 불교 조각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1666년 혜정(惠淨)에 의해 조성됐으며 은적사 지장전에 봉안돼 있다. 몸에 비해 머리가 큰 편으로 두 손은 다리 위에 낮게 두고 있고 각각 엄지와 중지를 맞댄 시무외인(施無畏印)과 여원인(與願印)을 표현했다. 시무외인은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없애준다'는 의미이며, 여원인은 '생명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군산 성불사가 소장하고 있는 <석가여래행적승>은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 238호로 지정됐다. 불교서적으로 사료적 가치가 높은 <성불사 석가여래행적승>은 1643년 수청산(水淸山)에 있는 용복사(龍陂寺)에서 간행된 것으로 본문은 상·하권 2권으로 나뉘져 있다.

상편에는 석가모니의 일생과 인도불교, 하편에는 불교가 중국에 전해진 내력 등을 담고 있다.



군산 은적사 목조아미타불좌상

이번에 전북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석가여래행적승>은 조선불교초대 교정을 지낸 석전 박한영스님이 소장하고 있던 서책으로 남곡-재훈을 거쳐 현재 성불사 주지 종명 스님이 소장하고 있다.

이로써 군산에 있는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는 모두 11건으로 늘어났다. 이를 포함해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문화재자료 등 전라북도 지정 문화재는 모두 21건이 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부안 개암사, 국립공원 자원봉사자 장학금 전달

부안 개암사(주지 재안)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사회장학금을 국립공원 자원봉사 청소년들에게 전달했다.

개암사 주지 재안 스님은 구랍 28일 번산반도 국립공원 관리공단 사무소에서 국립공원 자원봉사 청소년 10명에게 장학금 총 200만원을 전달했다. 재안 스님은 지역사회 공감대 확산을 위해 3년째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다.

전달식에서 재안 스님은 "작은 금액이지만 개암사가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작은 힘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암사는 이외에도 지난해 11월에는 부안군청에 나무미농장장학금을 기탁한 바 있다. 또 지역사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공익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비의 쌀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와 끈끈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노년의 꿈 향해 동행하는 정다운 이웃"

## 금산사 복지원, 기린봉노인복지관 개관

금산사 복지원(대표이사 성우 스님, 금산사 주지)이 수탁 운영하고 있는 서원복지관 분관인 전주 남노송동 소재 기린봉노인복지관이 구랍 30일 개관했다.

개관식에는 성우 스님을 비롯해, 서원복지관장 지월 스님, 김승수 전주시장, 전주시 복지관계자,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개관식에서 성우 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전주 서원노인복지관에 이어 기린봉복지관을 개관하게 됐다"며 "14년간의 노인복지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기린봉복지관은 연면적 약 1263.03㎡(약 382평)에 지상 3층의 규모로 특별교 부금 5억, 시비 2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건립됐다. 프로그램실, 노송작은도서관,



금산사 복지원 대표이사 성우 스님을 비롯한 내빈들이 개관기념 테이프 절단을 하고 있다.

컴퓨터실, 휴게실, 운동시설, 대강당, 식당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전주 구도심 어르신들의 욕구해소를 위해 개관한 기린봉복지관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3명과 조리사, 도서관 사서를 채용해 어르신들이 편하게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노송동 주민들은 "그동안 노송동 지역을 중심으로 구도심지역에는 노인복

지관이 없어 불편했는데 기린봉복지관이 개관해 편리하게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복지관 개관을 환영했다.

지월 스님은 "남노송동 지역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인 기린봉노인복지관이 개관에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어르신들의 노년의 꿈을 향해 동행하는 정다운 이웃의 미션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복지관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포교사단 전북지역단 포교전진대회

전북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150여 포교사들이 올미년 한 해를 돌아보고 병신년 새해 도약을 다짐하는 포교전진대회를 개최했다.

포교사단 전북지역단(단장 주정기)은 구랍 28일 전주 라무체에서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 조계종 신도국장 덕산 스님, 금산사 포교국장 지월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윤희중 9대 포교사단장 당선자, 이정상 차기 전북지역단장 등 포교사 15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포교전진대회를 개최했다.(사진)

대회에서 성우 스님은 법어를 통해 "포교사는 일반신도들과 차별화된 신생활을 해야 한다"며 "대신심과 대자비심을 갖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포교사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지난 4년간 전북지역단을 이끌고 퇴임한 주정기 단장에 대한 공로패 증정과 우수 포교사와 포교팀에 대한 시상식이 이어졌다.

시상식에서 전북불교회관 염불봉사팀을 이끌고 있는 유봉순 포교사가 포교원장상을 수상했으며 이승근 군포교 3팀장을 비롯한 7개 포교팀이 교구장 표창을 받았다. 또 금산중학교 황인찬 학생 등 중립금산중고생 4명에게 장학금이 전달됐다. 이외에도 전북불교회관 어린이법회를 지도하고 있는 안수빈 포교사의 포교모범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동참한 포교사들은 포교사의 다짐을 함께 낭독하며 병신년 새해 포교일선에서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새해새술 자비광명 온 누리에

謹賀新年



## 사단법인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 제10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6년도 초급·중급·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1. 교육기간 및 과정

-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승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나. 중급과정(4개월)
  - 관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묵탁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옥, 용호계 (신중적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계, 지장정, 사량도청, 전사식, 관음의식, 상왕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리나바라, 회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점적법
  - 사 물 : 태징 북, 광석, 호적(태평소), 전통의사타법
  - 특 강 : 장사연, 종사연, 관의식, 사리제(대배), 예수제위식 등

라. 강 주 : 석범은 스님

#### 2.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 (교재비별도)

####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본 총무원에서 교부)

#### 6. 협찬회비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북성9길 28 (북성1로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TEL 054) 974-2605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대한불교조계종

## 진관사

회 주 진 관  
주 지 계 호

사부대중일동

- [부설] 보현정사 포교원, 코끼리 유치원, 사회복지법인 진관사유원, 진관지역아동센터, 불광노인복지관·불광데이케어센터 (사)진관사국행수륙재보존회, 진관사 산사음식연구소, 구파발 어린이집, 기자촌 어린이집

■ 서울시 은평구 진관길 73 TEL 02)359-8410 / www.jinkwansa.org